

강무미 · 손 홍 · 신병문  
한국정보통신기술협회

bmkang@tta.or.kr · hsohn@tta.or.kr · bmcin@tta.or.kr

The Present and Future Image on Organic System of ICT Standardization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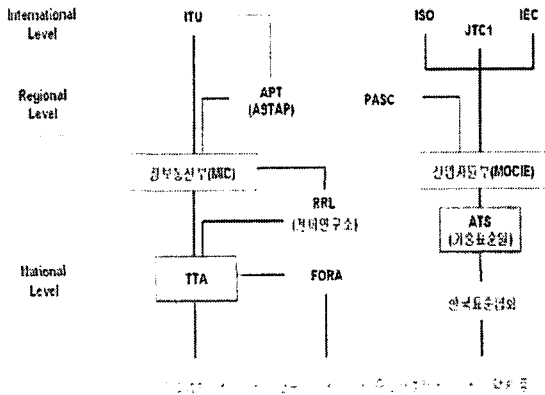
Boo-Mi, Kang · Hong Sohn · Byoung Moon, Chin  
Telecommunications Technology Association

요 약

최근 정보·통신·방송 등의 융합으로 소위 정보통신분야의 표준화 대상은 다양해지고 있다. 그러나 국내 표준화 추진체계는 산업표준과 정보통신표준의 양대 체계로 이루어져, 양 부처간의 조정기능이 미흡하여 시로간에 이해나름과 업무중복 등 역기능이 발생하고 있다. 즉 산업표준은 산업자원부 주관 하에 기술표준원을 중심으로, 정보통신표준은 정보통신부 주관하에 민간기구인 한국정보통신기술협회(TTA)를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이에 주요 국가의 표준화 추진체계를 조직적 측면에서 검토·분석하여, 최근의 정부조직개편의 움직임에 발맞추어 바람직한 표준화 추진모형을 제시해보고자 한다.

1. 국내 표준화 추진체계 현황

우리나라의 표준화 활동은 1961년 9월 공업표준화법이 시행되면서 국가차원의 공업표준화 사업이 정부주도로 전이되기 시작되었으며, 1980년대 중반까지 공업표준(현 산업표준) 위주로 추진되었다. 정보통신분야의 표준화 활동은 1952년 우리나라가 ITU(International Telecommunication Union)에 가입함으로써 시작되었으나 1989년 민간차원의 정보통신 표준제정기구인 한국정보통신기술협회(TTA, Telecommunications Technology Association)가 설치되면서 비로소 국내의 표준화 활동을 폭넓게 전개하기 시작하였다.[1] 따라서 현재 표준화 대상은 다양하지만 크게 산업표준과 정보통신표준의 양대 체계로 이루어지고 있다.



(그림 1) 국내 표준화 추진체계

즉, 표준화 담당 정부기관이 산업자원부와 정보통신부로 이원화되어 산업표준과 정보통신표준 업무가 이원적 체제로 운영되고 있다.

산업표준은 도량형과 기술기준 등에 초점을 두는데 반

하여, 정보통신표준은 그러한 산업표준이 특정 위에 상호운용성(interoperability)와 상호접속성(interconnectivity)의 추가적인 특성을 지니고 있다.

이에 따라 산업표준화는 산업자원부 산하 기술표준원이 국가표준제도의 확립·지원 및 산업표준화제도의 운영 등의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정보통신표준화는 정보통신부 주관하에 전기통신기본법에 의하여 설립된 민간기구인 한국정보통신기술협회(TTA)가 정보통신의 표준화 업무를 총괄적으로 수행하고 있다. 따라서 이들이 대응하는 국제기구도 각각 ISO/IEC와 ITU로 이원화되어 있다.

이와 같은 이원적 구조는 한국이 1990년대 이후 전 세계적으로 IT 강국으로 발돋움 하는데 크게 기여한 것이 사실이다.

한편, 최근 디지털화·네트워크화가 급속히 진행되면서 표준은 기업의 생산은 물론 국가 경쟁력을 좌우하게 되었다. 특히 WTO(World Trade Organization) 출범이후 WTO TBT(Technical Barrier to Trade) 협정은 각국이 국제표준을 의무적으로 수용하도록 하고 있으며, 자국의 표준정책으로 무역마찰의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WTO 사무국에 통지하도록 하고 있다. 그리하여 21세기는 '표준 전쟁의 시대'라고도 한다.[2]

즉 기술발전의 측면에서 국제표준화 활동을 통한 선진기술의 조기도입, 선형표준의 연구와 개발, 시의적절한 적용 및 시장선점 등 관련 산업의 발전을 지원한다는 이점을 가지고 있다. 표준으로 인하여 제품을 저렴하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다는 측면에서도 사용자에게도 이점이 된다. 이러한 필요성 내지 효과로 인하여 표준은 국가간 무역전쟁에 있어서 새로운 전쟁수단이 되고 있다.

표준화 활동의 궁극적인 목표는 표준화를 통한 기술강국의 실현과 국가발전에서의 기여이며, 따라서 우리의 원천기술을 가지고 국제표준화를 주도하여 IT 산업발전 및 국가경제발전에도 기여할 수 있도록 국제표준화를 주도해 나가야 한다. 한편, 우리나라의 표준화 추진체계는 크게 산업표준화와 정보통신표준화의 양대 지주로 추진되고 있는